

불교 팔정도(八正道)의 윤리적 함의(含意)

이상호*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불교의 팔정도(八正道) 사상이 윤리적 측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논지를 펼쳤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 이 때 무엇이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지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인은 파악이 되었지만 해결 방안이 없다면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석가모니가 제시한 팔정도는 윤리적 측면에서 한 줄기 단비와 같다.

석가모니는 중도(中道)를 설법하면서 진리의 측면에서 연기론(緣起論)을 말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팔정도(八正道)를 설파했다. 팔정도는 8가지 괴로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정견(正見)·정사(正思)·정어(正語)·정정진(正精進)·정업(正業)·정명(正命)·정념(正念)·정정(正定)을 말한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행과 관점을 비롯한 자신의 마음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올바른 언어 습관을 통한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평소 마음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이 지나치면 남의 것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 대인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괴롭게 된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남을 원망하고 스스로 책망하면서 화를 낸다. 근본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며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이다. 팔정도는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중도(中道),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정진(正精進),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념(正念), 정정(正定)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I. 서론

불교에서는 행복의 조건으로 마음 관리와 관계 좋음은 중요하게 여긴다. 실생활에서 마음 관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밖에 없다. (一切唯心造) 똑 같은 상황을 두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만족하고 수용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아는 사람이 행복한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축하해 주게 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당면한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불만족 상태가 지속 되면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된다. 이런 사람일수록 시기와 질투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겉으로는 축하를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를 하게 된다.

둘째 주변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나와 주변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 친지와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괴로움에 힘들어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사고방식이다. 주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생각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느냐에 따라 해결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우리 삶의 모습을 괴로움으로 보고 있으며,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하여 최고의 정서인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길을 四聖諦로 제시한다. 모든 종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는(離苦得樂) 것이다. 부처가 말한 인생의 8가지 괴로움은 생노병사(生老病死)·애별리고(愛別離苦)·원증회고(怨憎會苦)·구불득고(求不得苦)·오온성고(五蘊盛苦)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삶은 더 이상 깨달음을 통해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괴로움의 바다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출생 후 젊었던 몸이 늙어가면서 몸의 여러 기관이 노후화 되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며, 연골이 닳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건강하던 몸이 아프게 되면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막연한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생노병사((生老病死)가 인생의 8가지에 해당하는 이유이다. 삶의 과정에 봉착하는 또 다른 괴로움이 사랑하는 사랑과 생이별이나 사별(死別)을 해야 하는 괴로움(愛別離苦)과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怨憎會苦))이다. 구하고자 하나 성취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괴로움(求不得苦) 또한 취업난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이나 좋은 배필을 만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젊은이 등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오온성고(五蘊盛苦)에서 오온(五蘊)은 인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을 말한다. 즉 정신(精神) 세계(世界)와 물질(物質) 세계(世界)가 너무 성성(盛盛)한 생기는 괴로움이 오온성고(五蘊盛苦)이다.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에서 찾는다. 자신의 욕구가 성취되었는데 만족할 줄 모르면 탐욕을 부리게 된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욕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게 된다.* 반대로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 좌절을 겪게 되면 자신의 잘못은 반성해 보지 않고 남 탓을 하며 화를 내며 괴로워하게 된다.

나에게 좋으면 탐욕을 부리게 되고, 나에게 싫으면 성내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리석음(無明)이다. 괴로움의 또 다른 원인이 어리석음(無明)이다.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어리석음은 진리를 덮어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없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잘못 알게 하고 잘못 보게 해서 세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 사물을 바라볼 때 사물이 실제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리석음이 자기 나름의 색안경을 쓴 채로 보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하게 막는다. 모든 현상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본다. 그 결과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며 성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괴로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八正道이다. 본 논문에서는 팔정도의 기원을 알아보고, 팔정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대인에게 시사해 주는 윤리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기론과 八正道의 기원

석가모니는 중도(中道)를 설법하면서 진리의 측면에서 연기론(緣起論)을 말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팔정도(八正道)를 설파했다. 本章에서는 연기론과 팔정도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연기론(緣起論)

연기론(緣起論)은 이 세상의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일의 결과가 직접적인 원인과 조건 및 간접적인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나고 전개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잡아함경』에서는 연기의 공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黃石公. 『素書』 제4장 : 苦莫苦於多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영화에 있어 주연과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 및 감독 이하 여러 관계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주연이 꽃봉오리라면 나머지는 꽃대를 비롯한 뿌리에 해당한다. 꽃봉오리에서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꽃대를 비롯한 뿌리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뿌리나 꽃대가 없어도 꽃봉오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이것과 저것은 서로의 존재 근거를 위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서로의 중요성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게 되며, 남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겨 함께 마음 아파해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석가모니는 12연기(十二緣起)로 세분화하여 연기론을 설명하고 있다. 12연기(十二緣起)는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明色)→육처(六處)→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무명(無明)은 어리석음으로 인간 삶과 죽음에 대한 고통의 근본 원인이며 사성제(四聖諦)와 인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 무명번뇌라는 원인 때문에 행위를 하게 되고 업이라는 결과를 짓게 되고, 업이 원인이 되어 업의 과보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명(無明) 때문에 행(行)을 짓게 된다. 행(行)은 어리석음으로 몸(身行)과 말(語行), 마음(意行)의 삼업(三業)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行)이 원인이 되어 식(識)이 생긴다. 본래 일체의 존재는 모두 무상하여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식이 생겨난다. 따라서 식(識)은 제6식인 의식으로 입태(入胎)의 식(識), 재태(在胎)의 식(識), 출태(出胎)의 식(識)으로 나눌 수 있다. 식(識)이 원인이 되어 명색(明色)이 발생한다. 명색(明色)은 태중에 있어서의 몸과 마음으로 정신적인 것(明) 물질적인 것(色)으로 나뉘는데, 色은 色, 聲, 香, 味, 觸, 法을 합친 것이다. 명색(明色)이 원인이 되어 육처(六處)가 생긴다. 육처(六處)는 육입(六入), 감각과 지각 능력으로 태내에서 자리 잡아 가는 눈, 코, 귀, 입, 혀, 몸 등의 오근(五根)과 온갖 마음의 현상을 이끌어내는 근원인 의근(意根)을 합친 것이다. 육처(六處)가 원인이 되어 촉(觸)이 발생한다. 촉(觸)은 사람과 만남이나 상황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눈, 코, 입 등 감각의 활동

* 『雜阿含經』 : 此有故彼有 此生故彼生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돈연, 『잡아함경』, 해인사출판부, 1993, p.61

(몸의 작용)에 의해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황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남녀 간에 만남(觸)이 있으면 느낌이 일어나게 된다(受). 수(受)는 즐거움이나 괴로움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간에 이상형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느낌이 생긴다. 수(受)가 원인이 되어 애(愛)가 발생한다. 애(愛)는 갈애(渴愛)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은 탐욕과 같은 것이다. 서로 느낌이 좋으면 자주 만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애(愛)가 원인이 되어 취(取)가 발생한다. 취(取)는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고 원하는 것이면 취하고 싶어 하고, 손해가 되거나 싫어하는 것이면 버리는 것이다. 갈애가 강해진 것이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이 강해지면 집착이 생기고 서로를 취하고 싶어 한다. 취(取)가 원인이 되어 유(有)가 발생한다. 유(有)는 갈애, 집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이 만들어지고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작용이다. 유(有)가 원인이 되어 생(生)이 발생한다. 남녀 사이에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생기는 경우이다. 생명 탄생은 새로운 괴로움의 출발점이다. 생(生)이 원인이 되어 노사(老死)가 발생한다. 노사(老死)는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이고 수양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지 못하면 무명(無明)으로 12연기를 또 돌게 된다.

2. 八正道の 기원

팔정도는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고 진리를 터득하는 여덟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팔정도에 대해 『초전법륜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여래가 완전하게 깨달은 것으로서,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中道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八正道로 正見·正思惟·正語·正業·正命·正精進·正念·正定이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 中道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열반을 얻었다.”*

중도(中道)란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들어맞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욕망에 탐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만족할 줄 알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감각적 쾌락을 통한 행복 추구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강한 감각적 쾌락 추구가 되고 여러 폐해를 낳게 된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의 폐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 마하시 아가 마하 빠디파 지음·김한성 옮김, 『초전법륜경』, 행복한 숲, 2011, p.18.

반대로 수양을 너무 중시하여 자신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몸을 괴롭히는 수행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몸을 괴롭히는 순간 고통이 일어나고, 고통을 받는 순간 마음에 성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다른不善한 업을 짓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道에 의한 행복과 평온의 수행을 해야 하고 깨달음을 통한 참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Ⅲ. 八正道의 내용과 윤리적 함의

불교의 팔정도는 정견(正見)·정사(正思)·정어(正語)·정정진(正精進)·정업(正業)·정명(正命)·정념(正念)·정정(正定)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 팔정도에 대한 내용과 윤리적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正見

정견(正見 : Right Understanding, Samma ditthi)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는 것. 바른 견해를 의미한다. 검은 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검게 보인다. 색안경을 쓰지 않고 사물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정견 또한 사성제(四聖諦)의 이치를 알고 사물의 진상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이며,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 바른 인생관이다. 정견은 존재론적 正見과 가치론적 正見으로 구분된다.

존재론적 정견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한다. 천동설을 주장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회의감을 느끼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안목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존재론적 정견은 몸이나 물질을 바라볼 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몸과 물질이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 몸과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고,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권력만능주의가 팽배하여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몸과 물질은 인연 따라 잠시 모양을 낸 것이다. 그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正見에 의해 이미 일어난 일은 수용하고 주어진 현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가치론적 正見은 사물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삼국지』에서 유비는 방통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방통

을 계양군 뇌양현의 현령을 맡겼다. 현령의 임무를 소홀하게 하고 술만 마신다는 보고를 받은 유비는 장비를 보내 점검하도록 한다. 장비가 도착한 그 날도 방통은 보이지 않았다. 술에 취한 채 나타난 방통에게 장비는 호통을 치지만 백 여일 동안 밀린 업무를 만나질에 깔끔하게 처리한다. 눈앞에 펼쳐진 사실에 놀란 장비는 유비에게 보고한다. 유비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빌고 제갈량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부군사(副軍師)에 임명한다. 가치론적 正見은 당나라 고승 운문대사(雲門文偃, 864~949)의 법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운문 대사가 어느 해 정월 초하룻날 원단의 상당(上堂)에 올라가서 대중들에게 “지나간 달의 소식은 묻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달의 소식을 한 마디로 말해 보아라”고 했다. 대중 가운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운문대사는 “해마다 좋은 해요(年年是好年),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다.”라고 자문자답을 했다고 한다.* 正見을 통해 인생을 바로 보면 해마다 좋은 해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해마다 나쁜 해가 되고 날마다 불행한 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老子 또한 ‘사람이 만든 온갖 화려한 색을 추구할수록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사람들은 자연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색의 아름다움에 익숙해져 그것만이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정견(正見)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으면 대인 관계에서도 아름답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둘째, 상대방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밋게 보이는 행동을 반성하여 수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세상사람 모두를 부처님을 보듯이 대하고, 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 대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나와 상대방의 차이점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말투나 행동을 반성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책임진다면 상대방 마음 또한 편안하게 되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 正思

* 청화스님, 『가장 행복한 공부』, 시공사, 2005, pp.21 ~22.

** 『老子』 제12章 : 五色令人盲目.

정사(正思 : Right Thought, Samma sankappa)는 대상을 생각하고 살피되 분별심이 없는 바른 인식작용을 말한다. 자신의 욕구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의 정서를 체험할 수 있다. 생각과 감정 때문에 사실을 혼동한다. 따라서 사실과 생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내 생각일 뿐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생각과 감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개념에 머물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어 마음이 괴롭고 쉬지 못하게 된다.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이다. 슬퍼하되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일어난 죽음을 수용하고 삶의 한 부분으로 지나가는 것을 견디어 내는 힘을 가지면서 슬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시로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 정서를 감지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으로부터 생기는 괴로움과 감정의 혼돈에 빠지지 않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된다.

잠시 인연 따라 모여 형성된 나이기 때문에 고정된 '나'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몸은 단백질, 지방 등 여러 물질을 모아 형성된 것으로 죽고 나면 혼은 흩어지고, 육체 또한 죽고 난 후 화장터에서 뿌연 연기, 한 줌의 뺨가루로 나오거나 흙 속에 묻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는 연기적(緣起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空)이다. 나라는 주격(主格)의 사라지면 욕구가 들어설 수 없다. 죽기 싫은 주체도 사라지기 때문 부지런하게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 특 트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몸에 집착을 하게 된다. 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와 남은 다른 존재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몸을 더 중시하게 된다. 자신의 몸을 중시하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된다. 들에 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고 기분이 좋으면 꺾어서 집에 꽂아 놓고 싶어 한다. 소유 욕구가 강해지면 꽃을 꺾게 된다. 지나가는 다른 사람도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기와 동일시하며 집착하고 있는 몸 밖의 것(境界我)인 부모형제, 남편, 아내, 자녀, 동산, 부동산, 아끼는 물건, 명예, 권력 등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착하게 된다.

자녀가 성장을 하면 스스로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놓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 인생 전반에 대해 개

*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이다. 특히 부모와 사별했을 때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다. 유교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3년상이라는 장치를 두었다.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 동안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까지 유체를 안치시켜 놓는 장소인 빈소를 설치하여 고인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을 맞이하고, 매장 후에는 묘소 옆에 여막을 설치하여 지내는 동안 부모의 죽음을 수용하고, 부모 잃은 슬픔을 치유하게 된다.

입하고 간섭하며 부모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하기 쉽다.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자녀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모의 의견에 반발하고 그 과정에 부모와 자녀 사이는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자녀에 대한 짐착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 때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게 된다.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부모의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가장 현명한 부모는 자신들의 삶이 자녀들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3. 正語

정어(正語 : Right Speech, Samma vaca)는 말은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말은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잠시라도 생각한 후 말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올바른 언어 습관에 의해 모임은 재미있으면서 유익해야 좋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도 내 스스로 나의 감정을 감지·표현하고, 상대방 감정을 공감·반응하는 것이다. 대화 또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공감해주면서 내 감정을 실어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언어 습관을 교정하는 일은 함부로 말을 하여 생기는 근본 번뇌를 제거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은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은 점을 지적할 때 너무 엄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충고의 가치가 있게 된다.**

상대방의 행위에 공감해 주고 표현하는 것은 의외로 잘 되지 않는다. 누군가 내 책상 위에 가을 국화꽃을 놓아 두었을 때 무심경한 사람은 보지 못한다. 보았다 하더라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보고 느끼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국화꽃을 놓아 두었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써 표현할 줄 알면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할 수 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미움을 깔고 제삼자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자 하는 심리에 빠지기 쉽다. 전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기분에 의해 가감승제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피해자의 불쾌감 더 커질 수 있다.

* 이상호, 「儒敎의 자녀교육론에 관한 研究」, 『東洋哲學研究』, 동양철학연구회, 2014.08, pp.121 ~ 122.

** 철우스님, 『욕심을 버리는 방법』, 민족사, 2005, p.49.

4. 正精進

정정진(正精進 : Right Effort, Samma vayama)은 열반을 향해 한결같이 충실하고 올바르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한 일은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잡념을 버리고 한마음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닦아 나가는데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법화경』과 석가모니 유언에는 다음과 같이 참된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음이 고행을 만나야 참된 정진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바뀌어 가니 게으름 없이 힘쓰라.**

석가모니의 유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쉽 없이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에게 꽃을 바치고 향을 사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가 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자책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일어난 일에 대해 집착을 하고 괴로워한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이미 내 손을 떠나 발생한 문제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한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밟게 되면 생긴 일을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나오게 된다.

과거 나라고 생각한 것은 이미 사라져버렸으니 없고, 미래의 나라는 존재는 아직 오직 않았으니 없고, 현재 나라는 존재 또한 찰나 사이에 수시로 변하여 사라져 버리니 없다.**** 중요한 것은 찰나 사이에 변화하는 순간순간 수행과 정진을 게으름 없이 힘쓰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행운은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正業

* 『法華經』: 心緣苦行 至是眞精進.

** 다무라 요시로 지음·이원섭 옮김, 『열반경』, 2001, p. 68.

*** 범구 역음·이규호 역해, 『법구경』, 문예춘추사, 2016, p. 196 ~ 197.

**** 용타, 『空을 깨닫는 27가지 길 空』, 민족사, 2014, p. 42

정업(正業 : Right Action, Samma kammanta)은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業은 원인(原因)을 결과(結果)로 하게 하는 소행을 말하는데, 크게 신업(身業)·구업(口業)·의업(意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업(身業) 몸으로 짓는 업으로 살아 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는 것, 훔치는 것, 부모 형제자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여자나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과 같은 음란한 행동을 말한다.

구업(口業)은 입으로 짓는 업으로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 욕설, 꾸미는 말 등을 들 수 있다. 거짓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고, 못 보았으면서도 보았다고 하는 것이며, 이간질은 사람 사이를 갈라서게 하고 파탄나게 하는 것이다. 욕설은 귀에 거슬려 듣기 거부하고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것이며, 꾸미는 말은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꾸짖거나 가르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의업(意業)은 의도성을 가지고 짓게 되는 업으로 탐욕·성냄·어리석음 삼독심을 의업이라고 한다. 업을 쌓게 되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도 강해진다.* 탐욕은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욕구하는 것이며, 성냄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여 죽이고 속박하고 체포하고 고통을 주겠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며, 어리석음은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갖는 것이다. 업은 자신이 짓는 것이며 부모형제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항상 업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선업을 행하고 악업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正命

정명(正命 : Right Livelihood, Samma ajiva)은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직업을 가져 귀한 생명을 올바로 유지하며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이다. 생명 사랑과 관련하여 맹자는 다음과 같이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못하겠는가마는 화살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다치게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니, 무당과 관 만드는 목수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 붓다고사 스님 지음·대임 스님 옮김, 『청정도론 1』, 초기불전연구원, 2013, p. 303.

** 『孟子』 「公孫丑章句 上」 제7장 : 孟子曰 矢人 豈不仁於函人哉 矢人 惟恐不傷人 函人 惟恐傷人 巫匠亦然 故術不可不慎也.

사랑하면 그것이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면 그것이 죽기를 바란다.* 하늘은 사람을 비롯한 만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타고난 수명대로 살아남기를 바란다. 각자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의 생존에 방해함이 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행위는 만물을 살리려는 하늘의 마음과 합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흐뭇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기 존중 의식과 함께 타인 존중의 마음이 있게 되면 아무리 자신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리(義理)에 합당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행하지 않는다. 직업의 선택 또한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맹자는 인의예지(仁義禮智) 본성으로부터 곧고 바르게 발현된 본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선(善)으로 보았다. 맹자에 의하면 인간의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서도 확충될 수 있지만 약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만든 갑옷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리한 칼이나 화살로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미역을 파는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탄생되기를 바란다. 그 결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기뻐하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마음을 확충해 나갈 수 있다.

반대로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화살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심이 깊어질수록 잔인해지기 쉽다.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과 맥락이 통한다. 푸줏간에서 짐승을 처음 죽일 때는 죽기 싫어 눈물 흘리는 동물들을 보고 차마 칼을 들지 못하다가,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져 죽기 싫어 울부짖는 동물의 소리에 둔감해지고, 동물을 죽이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디어져 차마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푸줏간 근처에 살게 되면 처음에는 차마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짐승들이 죽기 싫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 감각이 무디어지면 짐승들이 죽기 싫어 울부짖는 소리에 둔감하게 되고, 푸줏간에서 나온 고기를 맛있게 먹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해야 한다고 맹자가 역설(力說)했던 것이다. 관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사람을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많이 죽어야 생활해 나갈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 죽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자신의 돈벌이를

* 『論語』 「顏淵」 제7장 : 愛之 欲其生 惡之 欲其死

** 『周易』 「乾卦」 文言傳 朱子註 : 利者 生物之遂 物各得宜 不相妨害 故於時爲秋 於人則爲義 而得其分之和.

*** 『孟子』 「梁惠王章句 上」 제7장 : 是以 君子遠庖廚也.

위해 사람들이 많이 죽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주변에 누가 죽지 않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죽은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죽이는 직업과 관련된 도축업, 사형집행인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이 필요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자신의 직업 활동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이익 추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설령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죽여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면서 생명을 잃게 된 다른 존재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正念

정념(正念 : Right Mindfulness, Samma sati)은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집중하고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왜곡(歪曲)됨 없이 바르고 곧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만일 알아차림 없이 대상을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하게 되고,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탐욕이나 성냄의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상을 알아차리면 대상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모든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연관성 통찰을 통한 지혜도 생기게 된다. 이것은 맑고 고요한 물에 얼굴을 비추면 얼굴이 그대로 비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보시를 하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선정을 닦거나 지혜를 계발하는 모든 수행에는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해야 한다. 『서경』에서는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심(人心)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오직 미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해야 진실로 그 중(中)을 붙잡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형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라 하더라도 인심(人心)이 없을 수 없다. 인심(人心)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나온 마음으로 이해득실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마음이다. 한편 사람은 모두 하늘로부터 인의예지(仁義禮智) 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도심(道心)을 지니고 있다. 도심

* 『書經』 「虞書」 大禹謨 : 人心 惟危 道心 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道心)은 성명(性命)의 바름에서 나온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도심(道心)은 미미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 수양이 부족하여 알아차림 없이 대상을 이해하게 되면 눈앞의 사물에 유혹되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치닫기 쉽다. 마음 가운데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밀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리지 못하면 이해득실을 추구하는 인심을 추구하게 되면 더욱 위태로워지고, 미미한 도심은 더욱 미미해져 천리(天理)의 공평(公平)함이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내 마음을 성찰하여 인심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도심으로 제대로 가는 것인지 정밀하게 관찰해야 하며, 이해득실에 따라 마음이 변하지 않고 순수한 본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해 나가도록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집중하고 알아차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에 휩쓸리는 것을 멈출 수 있다.*

8. 正定

정정(正定 : Right Concentration, Samma samadhi)은 바른 선정(禪定), 올바른 명상, 바른 수행을 의미한다. 팔정도의 정점은 바른 선정이다. 선정은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정(正定)은 올바른 집중으로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선정(禪定)과 지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을 닦으면서 일체의 잡념이 생기지 않고 알음알이가 또렷해지고 고도로 집중이 잘 되어 지혜도 균등하게 한다. 선정 삼매(禪定 三昧)라고 말하는 것도 순수한 집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바른 도리, 참다운 도리에 딱 모아진 그 자리를 말한다. 근본인 참다운 성품 자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 전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

바른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호흡을 해야 한다. 올바른 호흡은 자연스럽게, 될수록 가늘고 길게, 고르게 해야 한다. 숨의 접촉 지점에서만 숨을 알아야 한다. 숨을 따라다니면 마음이 산만해진다. 올바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문지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은 문 앞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만 상대를 한다. 이미 검문을 통과하여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대로 집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문을 통과하여 바깥으로 나간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문 앞에서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호흡에 있어서도 접촉 지점까지 오지 않은 숨이나 이미 접촉 지점을 지나간 숨에

*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 지음·오원탁 옮김, 『부처의 길, 팔정도』, 아람드림미디어, 2006, p. 341.

** 일목스님, 『이해하고 내려놓기』, 궁리, 2013, p.147,

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오직 접촉 지점에 닿은 숨만을 알아차릴 뿐이다. 들숨이 접촉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날숨이 접촉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른 호흡을 하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뇌를 자극해 집중력이 생긴다. 산소 공급을 통해 뇌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내장에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배와 손발이 따뜻해지게 된다. 보통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은 심장의 뜨거운 화(火)의 기운이 몸 구석구석으로 공급이 안 되고 가슴이나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신장의 차가운 수(水)의 기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손발이 차기 때문이다. 호흡을 바르게 하게 되면 수승화강(水昇火降)이 이루어져 신장의 차가운 수(水)의 기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의 뜨거운 화(火)의 기운이 몸 구석구석으로 공급되어 배와 손발이 따뜻해지게 되고, 기운과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져 인체의 면역력이 생겨나고 몸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IV. 결론

모든 사람은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통한 행복한 생활을 원한다. 석가모니는 우리 인생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을 생노병사(生老病死)·애별리고(愛別離苦)·원증회고(怨憎會苦)·구불득고(求不得苦)·오온성고(五蘊盛苦) 등 8가지로 제시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탐욕·성냄·어리석음으로 파악하였다. 괴로운 현실과 원인을 파악한 석가모니는 괴로움이 순환하는 고리를 끊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여덟가지 바른 길을 제시했다.

팔정도(八正道)는 계(戒)에 해당하는 정견(正見)·정사(正思)와 혜(慧)에 해당하는 정어(正語)·정정진(正精進)·정업(正業), 정(定)에 해당하는 정명(正命)·정념(正念)·정정(正定)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戒)·정(定)·혜(慧) 세 가지는 서로 보완적이다. 계율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마음의 흔들림 없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고, 마음이 편안하고 집중이 되면 진리를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계(戒)에 해당하는 정견(正見)·정사(正思)를 하게 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으로 부터 생기는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비행기를 타고 고도를 높이 올라갈 경우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는 성운층을 벗어나면 맑고 깨끗한 하늘을 만날 수 있다. 정견(正見)을 통해 무명번뇌(無明煩惱)의 구름을 제거하여 그것에 덮여 있는 본래청정(本來淸淨)한 여여실상(如如實相)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겉모습이 아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기(緣起)에 의해 인연 따라 형성된 나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난

일은 수용하고 주어진 현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하게 된다. 혜(慧)에 해당하는 정어(正語)·정정진(正精進)·정업(正業)을 통해 주변 사람과 두루 통하고 일에 걸림이 없게 된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공감해주면서 내 감정을 실어 표현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통해 주변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잡념을 버리고 한마음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닦아 나가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게 노력하게 된다. 업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선업을 행하고 악업을 행하지 않게 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직업을 가져 귀한 생명을 올바르게 유지하며 올바르게 생활하게 된다. 정(定)에 해당하는 정명(正命)·정념(正念)·정정(正定)을 통해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집중을 하게 된다. 즉,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직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집중하는 습관을 통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定)과 혜(慧)는 함께 닦아 나갈 때 더 효과적이다.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집중하고 알아차리면서 선정을 닦아 올바른 집중을 하게 되고 잡념이 생기지 않아 알음알이가 또렷해지고, 고도로 집중이 잘 되어 지혜도 균등하게 된다. 선정 삼매(禪定 三昧)를 통해 참다운 도리에 딱 모아진 그 자리를 체험하게 되면 주변 상황이 변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

참고 문헌

- 『雜阿含經』 『大涅槃經』 『法華經』 『周易』 『論語』 『孟子』 『書經』 『老子』 『素書』
- 다무라 요시로 지음·이원섭 옮김, 『열반경』, 2001.
- 돈연, 『잡아함경』, 해인사출판부, 1993.
- 마하시 아가 마하 빠디파 지음·김한성 옮김, 『초전법륜경』, 행복한 숲, 2011.
- 법구 엮음·이규호 역해, 『법구경』, 문예춘추사, 2016
- 붓다고사 스님 지음·대임 스님 옮김, 『청정도론 1』, 초기불전연구원, 2013.
- 용타, 『空을 깨닫는 27가지 길 空』, 민족사, 2014.
- 이상호, 「儒敎의 자녀敎育론에 관한 研究」, 『東洋哲學研究』, 동양철학연구회, 2014.
- 일목스님, 『이해하고 내려놓기』, 공리, 2013.
- 철우스님, 『욕심을 버리는 방법』, 민족사, 2005.
- 청화스님, 『가장 행복한 공부』, 시공사, 2005.
-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 지음·오원탁 옮김, 『부처의 길, 팔정도』, 아람드리미디어, 2006.

Abstract

The Ethical Implication (含意) of the Noble Eightfold Path (八正道) of Buddhism

This study was carried out emphasizing on how the thought of the Noble Eightfold Path of Buddhism can be applied to ethical aspects. In general, people want a pleasant and happy life away from difficult and distressed situations. There must be a causal analysis of what makes oneself difficult and distressed. When the cause analysis is conducted, a solution should be prepared. The cause is grasped, but if there is no solution, it must be frustrating. In that respect, the Noble Eightfold Path proposed by Shakayamuni is a streak of refreshing rain in terms of ethics.

While he spoke a middle path(中道), Shakayamuni spoke the philosophy of Karma (緣起論) in terms of the truth and the Noble Eightfold Path in the practical aspect. Noble Eightfold Path is a solution to eight problems such as Right Understanding (正見)·Right Thought(正思)·Right Speech (正語)·Right Effort(正精進)·Right Action (正業)·

Right Livelihood(正命)·Right Mindfulness(正念)·Right Concentration(正定).

To lead a happy life, one must manage his/her own mind, including correct performance and perspective, and be good 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proper language habits. If one is not in good mood, he/she will end up desperate, even if his/her desires are met. If the greed gets over, one will take away the other's and make it his/hers. In the proc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come uncomfortable and distressing. If his/her desires are not met, he/she grudges and rebukes himself/herself. When one is basically not wise and does not understand the truth, he/she gets greedy, angry, suffering from bitterness. The Noble Eightfold Path can be an ethical implication in that it can be a solution to analyze the cause of suffering and lead to a happy life.

Key words: The middle path , Right Understanding, Right Thought, Right Speech, Right Effort, Right Action, Right Livelihood, Right Mindfulness, Right Concentration.

중등교육연구 제29집 (2017년), pp. 143-160.

논문 투고일: 2017. 11. 23

심사 완료일: 2017. 12. 08

게재 결정일: 2017. 12. 10